

전북 각계 단체, 이재명 지지 선언 ‘붐물’

노조·청년·예술계 등 동참
“노동·복지·산업혁신 기대
AI·한우법·돌봄정책 지지”

D-13 6.3 대선

전북에서 근로자들과 종교인, 청년 경제인, 예술인 등이 잇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

20일 한국노총 전국 건설산업인 노동조합과 전북청년경제인불자회, 전북IT산업협회,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회장단 등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전국 건설산업인노조 전북본부는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지도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을 중에서도 을’로 불려온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해결 가능한 의지가 강한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기자회견을 연 전북청년경제인불자회는 이날 “갑등을 통합하고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소리쳤다.

전북IT산업협회도 “이 후보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지지에 확신을 실었다.



이재명 지지 ‘한목소리’

전북에서 근로자들과 종교인, 청년 경제인, 예술인 등이 잇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전북타임스>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후보를 “장기요양기관이 성장하고 어르신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제도를 혁신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그는 국가의 돌봄 책무를 바로 세우고 누구나 안심하고 나이를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역시 “농가가 한우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우법을 제정하고 한우산업의 제반을 만들이 후보를 지지한다”며 “농업의 신성함과 가치를 존중하고 과감한 변혁으로

한우산업의 미래를 이끌 대통령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회장단도 “내란세력의 준동을 적절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위상을 펼칠 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민주당 전북특보단 출범 14개 시군 조직 본격 가동

임명장 수여 선거체제 돌입
정무·직능 특보로 조직 보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은 19일 전북도당에서 ‘전북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수여식은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안호영 수석부단장과 박희승 전북특보단장도 함께 참석해 전북특보단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 전북특보단’은 도내 14개 시·군 조직특보를 중심으로, 13명의 직능특보가 전문성을 보완했으며, 19명의 정무특보단이 지지 기반을 더하며 촘촘하고 탄탄한 선거조직 체계를 갖췄다. 또한 이돈승 지역언론특보단장을 포함한 26명의 총괄특보단도 함께 임명되어 전북지역 특보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전북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역사의 전환점마다 앞장서 온 주체였다”며, “12·3 내란을 극복하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보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부단장은 “전북 대표주자인 특보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할을 모아야 한다”며, 특보단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희승 전북특보단장은 “암도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이 특보단의 목표”라며, “이는 전북인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전북특보단은 앞으로 정책 제안, 공약 홍보, 대국민 소통 등 선거 전략의 실질적 실행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목기자



민주당 이재명후보 총괄특보단은 19일 전북도당에서 ‘전북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사진=민주당 전북도당>

정읍 지역주민·환경단체 SRF 소각시설 백지화 요구

전북도의회서 반대 기자회견
“환경·건강 위협 탄소중립 역행”

전북도 정읍 일반산업단지에서 공사중인 SRF 고형연료 소각 시설을 두고 주민·환경단체가 환경피해 등을 전제로 백지화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장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과 폐목질계화력발전소정읍시반대책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자리에서 SRF 소각시설은 “유해물질 소각장이다”고 백지화를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고형연료 소각발전소(주재료 폐목재)는 정읍 일반산업단지에 2027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은 하루 552t 폐목재를 소각해 21.9MWh(메가와트시)의 전기와 480t의 증기 생산시킬 수 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SRF는 ‘바이오’, ‘신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체는 폐목재, 산업폐기물 등에서 만들어진 고형연료에 불과하다”며 “폐인트나 방부목, 가구류 등의 목질계 폐지재에는



<사진=전북타임스>

납, 카드뮴, 수은, 비소, 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고 주민피해 우려소리를 던졌다.

더불어 “현재 건설 중인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시설이 가동되면 친환경 농산물과 작물 재배, 관로에도 영향이 크다” 이으로 인해 “시설이 가동되면 온실가스 다량 배출은 물론이고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기자

道,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총력 대응

김중훈 부지사 환경·해수부 찾아
새만금국가어항 등 189억 요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단계 마지막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19일 세종청사 방문에 이어, 20일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직접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부처별 예산요구서 제출(5.31.)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로, 전북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한 막판 총력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김 부지사는 이날 환경부 이병화 차관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환경생태대응지 조성(2·1단계, 2·2단계)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총 7건, 약 18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를 찾아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총사업비 480억 원) △고창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170억 원) △정년 장영형 양식단지 조성(100억 원)

등 해양신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도는 쟁점이 된 사업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향후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훈 경제 부지사는 “현재는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부겸, 전북 방문 이재명 후보 지원유세

지역 청년 민생·미래 청취 “민생회복 최우선 민주당 진심 전달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전북자치도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원유세 활동을 펼쳤다.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

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주요 선거현안과 민심 동향 등을 논의했다.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층이 바라는 민생·미래 비전을 듣고 논의한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계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민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2시부터는 직장인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층이 점심시간을 맞아 집중되는 주요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주시 골목골목 유세에 나선다.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의 진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목골목 유세에는 최찬호 전북특별자치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및 지방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주시민과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김부겸 위원장의 지원 유세를 계기로 전북 민심을 더욱더 결집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지역 민심 다지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 미래차 대전환 ‘대체부품 산업’ 육성 본격화

88개 품목129억 규모 지원 전북형 인증제도 도입 예정

전북자치도는 자동차산업 친환경차 전환 흐름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부품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대체부품 육성 사업은 2018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위축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추진됐다.

이를 통해 수의 다변화, 부품다각화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8개 품목(개발 중 14개) 129억원 규모 대체부품 개발을 지원했으며, 48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생산과 수출로 이어지는 대체부품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품목을 확대할 계획(88개→100개)으로, 이 중 개발이 완료된 74개 품목 중 38개는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또 지난해부터는 품목 발굴과 제품 개

발 등 초기단계의 컨설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인증 분야에서는 올해 2월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국토부 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북지회가 군산 지역에서 도내 기업의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2021년 국토부 지원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2종의 생산 장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소 영세 기업의 생산력 강화를 돕고 있으며, 2023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대체부품 생산기업들이 모여 ‘자동차부품생산자협동조합’을 출범시켜 원자재 공동 구매와 물류 연계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억7천만 원을 들여 국내의 전시회 공동 부스 운영과 해외 바이어 발굴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3건의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북미 애프터마켓 시장은 연평균



2023년 10월 해외 수출계약식

<사진=전북자치도>

8%의 고성장이 전망돼 전략적 수출 타겟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에도 전북자치도는 대체부품 산업을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스웨덴 말피조산업 붐과 이후 혁신산업 도시로 재도약한 사례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퍼플오션으로서의 부품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

만을 넘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지자체 최초로 대체부품 자체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대체부품 산업이 도내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개시

“도민 체감 변화 실행 정책 실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정권이)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딘 거 같다”고 북한을 사실상 옹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용산역 광장 유세에서 “계엄을 해야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가 북한을 자극을 해 가지고, 북한하고 한 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신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심지어 개활지, 이 차가 지나가거나 뭘 할 수 있는 데는 전부 장벽을 쌓더라”라면서 “6.25 이후에 없던 일을 북한이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북한이 장벽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 북한이 왜 장벽을 쌓을까? 휴전선에. 돈 들어서 먹고 살기도, 거기도 팍팍할 텐데”라며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거 아니겠냐”라고 북한이 남한측이 침략할

것을 우려해서 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결국은 백주 대낮에 아무 일도 없는데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내고, 이재명부터 박찬대, 정청래 다 잡아가지고 배에다 실어 가지고, 연평도 가는 배 안에서 폭발을 시켜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혜수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세 현장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 과연 적절하냐”면서 “이재명 후보님, 아무리 정권 창출의 열망이 크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주체사상 사이버종교 북한정권과 살인자 김정은 가문을 옹호하는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벌써부터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듯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진심으로 가슴이 찢어진다”며 “불온한 살기도, 거기도 팍팍할 텐데”라며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거 아니겠냐”라고 북한이 남한측이 침략할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조국혁신넷, 골목골목 경청 투어

25일까지 14개 시·군 순회 실천형 유세 캠페인

전북조국혁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두 발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보여주기식 유세가 아닌, 직접 발로 걷고 골목골목을 찾아가 도민의 삶을 듣고, 함께 바꾸는 실천형 유세 캠페인이다.

‘혁신당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 각 지역 당원들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사거리, 역전, 터미널 등 생활 밀착 공간에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고 있다.

현장에서 시민들은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검찰 해체·정권교체를 위한 정책 구상을 직접 듣고, 자신들의 생활 속 요구를 나누고 있다.

전북조국혁신위원회는 이번 ‘두 발로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통해 형식이 아니라 진심, 구호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를 전북 도민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을 보면 18일 익산역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19일 부안군, 20일 완주군까지 진행됐으며, 21일 임실군, 22일 전주시, 23일 익산시, 24일 군산시, 25일 임실군 오수장 및 관촌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 농촌돌봄농장 첫 기초교육

10개 시도·신규·예비사업자 45명 대상 이론·사례 중심 구성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김제시에 위치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교육훈련기관’에서 전국 10개 시도의 교육생 45명을 대상으로 농촌돌봄농장 첫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시도별 교육생 현황(총 45명)으로는 ‘경기도 11명, 충청남도 9명, 경상북도 6명, 충청북도 4명, 전북특별자치도 4명, 전라남도 3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 인천광역시 2명, 강원특별자치도 2명, 경

상남도 1명 등이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신규 농촌돌봄농장 사업자 및 2026년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진행됐다.

향후 농촌지역 특화 서비스 공동체, 지역지원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사회적 농업의 개념 및 이해 △실천의 의미 △사회적 경제 기초 △대상자별 농촌돌봄 사례 토론 등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가치와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의 식사에는 센터 인근 식당에서, 숙박은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도록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경상북도에서 참석한 한 교육생은 “왕복 8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까지 교육을 받으러 온 보람이 있었다”며 “최첨단 교육시설과 카페테리아 같은 편의시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에 매우 만족했다.

지역에 돌아가면 전북 교육을 적극 추천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장은 “전국 최초로 교육훈련기관에서 무리 없이 첫 교육이 진행돼 기쁘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농촌 활력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올해 3월 전북 김제에 준공됐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기반으로 전국 농촌 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 경제 연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졸음운전 예방 3 GO!

졸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세요!

창문 열 GO!

환기 하 GO!

잠시 쉬고 GO!

전북도, 기업 품질 고도화 기반 마련

중기부 '생산장비 고도화' 2년 연속 선정 22억 확보 비파괴3D검사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공모에서 '비파괴 3D 융합기술을 활용한 품질 검사 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 22억 6천만 원(국비 11.3억, 도비 11.3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15억 원 이내, 최대 18개월간 지원된다.

이는 신규 장비 구축 및 기존 장비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제품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전북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600kV 중대형 3D 엑스선 스캐너' 도입을 결정했다.

해당 장비는 중대형 제품과 부품의 정밀검사를 가능케 해, 도내 기업들의 품질 고도화와 제품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북의 주력 산업인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과 첨단 에너지산업(수소·이차전지 등)의 기술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기존 엑스선 3D스캐너 장비들과 연계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아우르는 기업 수요 맞춤형 품질검사 지원 및 디지털 3D 융합기술 연계 전주기 One-Stop 제품 품질 고도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윤세영 바이오광위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 신뢰도를 높여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전주시>

전주시, 휴비스서 '찾아가는 재해예방교육'

법정 의무이행 실질 지원
근로자 체감 맞춤형 교육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는 20일 전주 제1산업단지 내 대표 제조기업인 휴비스 전주공장 등에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작업장 내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면서 구상됐다.

이날 고용부 및 산업안전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에서는 휴비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초청된 강사들은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최근 산업재해 사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교육 전후로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참석자들 또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는 이날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관내 100인 이상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집합형 안전교육'을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강화된 사업장 책임 의무에 따라, 지역 제조기업의 법정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중대재해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수립 용역 추진 새만금 산단 중심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실버산업 거점단지 조성 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수립' 용역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북특별법 제33조에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북도 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과 조성이 규정되어 있다.

전북자치도는 고령산업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등 핵심인프라를 집적화해 글로벌 실버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도 2030년 미국 3.5조달러, 중국 2.2조달러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실버경제 확대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의 관련산업 육성 위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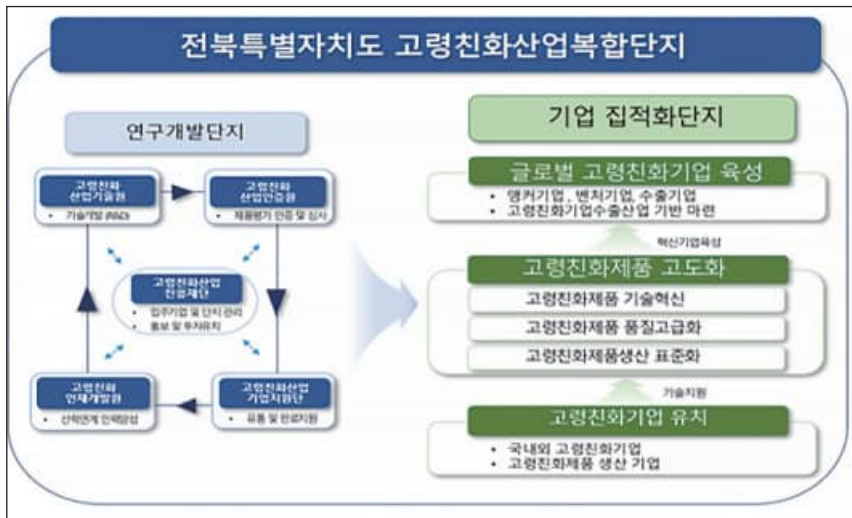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IT와 결합한 첨단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4년 전북연구원과 함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조성 및 개발 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성 등에 관한 기본구상에서 제품개발 및 인재를 위한 '연구단지'와 고령친화제품의 생산·유통 집적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제시했다.

복합단지 조성은 도내 국가산업단지 내 총사업비 약 6,000억원 투자해 약 40만평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등 주요인프라를 구축하는 복합용지와 고령친화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주차장, 생태공원 등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고령친화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단,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고령친화인재개발원 등의 단계적 건립안을 마련하고,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연구개발·생산·유통'이 집적화된 국내 최대의 실버산업 거점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전부가 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관할 하도록 하기 위해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026



전북자치도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수립' 용역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진=전북자치도>

년 국가 예산(보건복지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선제적으로 2025년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실버산업 허브 조성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년 진흥계획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복합단지 입지분석, 주요시설 건립, 정주여건 개선 방향 등 조성 방안, 복합단지 진흥, 고령친화 기업유치 및 육성 방안, 주요산업과 연계 등 복합단지 운영

계획,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고령친화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경제적 분석 등이다.

2025년 2월 용역 원가심사를 완료했으며, 4월중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종합평가를 실시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선정(25.4.23)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과장은 "정부차원에서 첨단기술(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중진공, 정읍 세창스틸 '도약기업' 선정

Jump-Up 프로그램, 현판 전달 중소→중견 지원 첫수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전북대표 강관 제조기업인 ㈜세창스틸과 새로운 도전을 함께한다.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는 정읍시에 위치한 ㈜세창스틸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현판 수여식이 열렸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오늘이 ㈜세

창스틸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중진공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인력성장이사의 축사로 시작된 수여식은 중견기업으로 도약 위한 ㈜세창스틸 첫 걸음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이재선 ㈜세창스틸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로 시작해 기업소개, 현판수여, 현장투어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현장투어에서는 1공장과 2공장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참석자들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유망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 견인으로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첫 발을 떼는 지원정책이다.

치열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전국에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기업의 성장전략 수립 지원 '디렉팅' △최대 7.5억원 사업화지원 '오피바우처' △네트워킹 및 정책연계 등을 단계별로 집

중 제공하고자 한다.

전북도 지역 선정기업인 ㈜세창스틸은 무계목(Seamless) 강관 제조기업으로 무계목 강관은 용접 강관과는 다르게 이음새가 없으며 고온/고압 등의 환경에서 내구성이 뛰어나, 자동차 샤프트, 중장비 체인부품, 농기계,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125명의 직원이 무려 연간 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충전소용 강관 개발에 집중하며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아시아 연금제도 '공유의 장' 열어

아태 공적연금 국제연수 개최 6개국 19명 참가, 4일간 운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보건복지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제11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The 11th Annual Training Course on Public Pension in Asia-Pacific)'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조지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개국에서 19명의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가 참가해 각국의 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강의 현장 견학, 국가별 현안과제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 또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발전 경험과 인공지능(AI) 사원 등 디지털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참가국들이 자국의 당면과제와 이슈를 공유하며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수는 교육효과를 높이고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구성된다. 앞서 온라인 연수는 지난주(5.12~5.13.) 2일간 실시했으며, 대면 연수는 오늘부터 4일간 본

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11만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이러한 유례없는 연금제도 발전 경험은 전 세계 공적연금 제도의 벤치마킹(benchmarking)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 수익률이 2023년 13.59%, 2024년 15.00%로 2년 연속 최고 성과를 냈고, 총 1,227조 원(2025년 2월말 기준)의 기금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국제연수과정은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확대하려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연금제도 운영방법을 전

수해 20개 국가(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 이란) 193명의 연수생을 배출하는 등 아·태지역 공적연금 연수의 핵심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며 쌓아온 공단의 운영경험이 이번 연수에 참가한 국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 운영방법과 경험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LX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컵홀더 제공

전북 카페 20곳 4,000개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친환경 컵홀더를 제작해 지역 카페에 전달하는 지역 상생 이벤트를 시행했다.

LX공사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본사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 내 카페 20여 곳에 친환경 컵홀더 4,000개를 전달했다.

컵홀더는 LX공사의 캐릭터 '랜디'가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응원과 지적층량 무료상담 등을 안내하는 콘셉트로 산뜻한 색감의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또 컵홀더에는 지역 카페의 스티커, 스탬프 등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여 카페 홍보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LX공사도



경영 위기에 있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면서 "앞으로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미력하게나마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 무고성 고소 교사 외면 지적

전북교육청 측 “전교조 주장 사실 아냐” 답변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로부터 무고성 고소를 당한 교사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방관·외면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0일 “지난해 정읍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 B씨

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교사 A씨는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 속에 학교 생활을 이어갔지만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B씨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 악의적인 무고였다”며 “교사가 출근하지도 않았던 방학 중의 특정 날짜를 기록해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병가로 인해 수행평가 성적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반복적으로 전북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사건을 외면했다”며 “교사를 보호할 책임은 외면한 채, 교육감을 위한 방탄 기자회견으로 권력 보호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지난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전

담변호사가 경찰 대응 동행 서비스를 했고, 법률 지원비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천명한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강한 교육활동 보호팀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부당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국 교육·사회단체 “지역대학·고등교육 재정 확대” 강조

차기 정부에 대학무상교육요구

교육·사회단체 등은 공동으로 6.3 21대 대선을 13일 앞두고 정치권에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둔 지금 여전히 어느 대통령 후보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사회단체가 공동으로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전국교수노동조합〉

“강의실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연구자들은 길을 잃고 떠나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한때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 비극의 원인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오랜 기간 방기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둔 오늘 정치권에 지역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대폭 확충 △지역 균형 발전 △대학 무상 교육 △대학 서열화 해소 △고등교육 생태계 혁신 △국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선거를 교육의 장으로 확장

생애 첫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서거석은 “당신의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투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철학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교육청은·교육지원청·직속기관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를 알리는 현수막 설치 및 전광판 메시지 게재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카드뉴스 및 콘텐츠 배포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 유권자를 위한 ‘18세, 투표로 세상을 움직인다’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서거석 교육감은 생애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18세 학생들을 위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여러분의 첫 한 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다문화센터, ‘세계인의 날 기념’ 법무부장관 표창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다문화센터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14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유공 포상자 및 가족, 이민자 네트워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08년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ABT)에 선정된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추진, 다문화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는 2010년부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1거점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왔다. 이승미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구성원들이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제3대 전북학부모회협의회회장 김지숙 선출

“학부모교육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제3대 회장에 김지숙 군산학부모회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임원진 선거’ 개최 결과 김지숙 군산학부모회협의회

장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부회장은 국찬호 전주시 학부모회협의회장과 정혜윤 익산시 학부모회협의회회장, 감사는 정현경 부안군학부모회협의회회장, 총무는 김찬휘 남원시 학부모회협의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지숙 회장은 “학부모들의 교육 참

전북대, 지역 초·중·고 대상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실시

삼례동초 찾아 체험 교육 병행

전북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현)가 지난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완주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2025년 환경보건이동학교’를 통해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환경보건이동학교는 기후위기 민감계층인 아동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체험 중심의 환경 보건사업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 삼례동초등학교, 20일 청원초등학교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3~6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기후위기에 살아남기’를 주제로 △기후변화의 원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활 속 실천방안 등을 다룬 이론 교육과 함께 학년별 맞춤형 체험활동이 병행됐다. 3·4학년 학생들은 ‘환경보건 딱지 만들기’와 ‘AR(증강현실) 게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5·6학년은 ‘환경보건 코딩봇 보드게임’을 활용해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향상시켰다.

/최성민 기자

걷고, 줄이고, 끄고! 푸른하늘 함께 만들어요.

1

가까운 거리는 걷고

2

폐기물 소각량 줄이고

3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끄고



이학수 정읍시장, 일손 부족 농가에 현장 지원

이학수 정읍시장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찾아 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이 시장과 농업정책과 직원 20여 명은 소성면 가지 재배 농가를 방문해 지주대 세우기 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힘을 보탰다.

이번 일손돕기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농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농가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지연돼 농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 이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지주대를 세우는 작업에 힘을 보탰고, 작업 후에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가주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돼 막막하던 차에 이학수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직접 와서 도와줘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단순한 노동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돼 있다”며 “시가 앞장서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노인일자리 환경 개선 시니어클럽 증축 완료

정읍시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의 거점인 시니어클럽의 공간을 확충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최근 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확보해 기존 시니어클럽 건물 옥상에 직원휴게실과 문서보관실(25.04㎡, 약 7평)을 증축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시니어클럽은 매년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에 비해 교육 공간과 문서 보관, 직원 휴게 공간이 부족해 운영에 불편이 따랐던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 참여 어르신 2600여 명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기에는 공간 여건이 열악했다.

이번 증축을 통해 시설의 공간 협소 문제가 개선되면서, 현장 운영의 효율성과 참여자의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자연과 공존하는 익산, 멸종위기 조류 사진전

익산시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의 날과 철새의 날을 기념해 20일 시청 1층 현관에서 ‘멸종위기 조류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30일까지 열리며, 만경강에서 서식하는 조류나 철새 등 국내외 멸종위기 조류 20여 종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시는 지역 생태계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교육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무화되면서 이번 사진전은 지역의 미래를 이룰 학생들에게도 지속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민선8기 군산시 공약이행 평가 ‘A등급’

공약 이행을 79.5% 달성 전국 평균보다 크게 앞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군산시가 우수 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군산시의 우수 A등급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발표에 의한 것이다.

군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지제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 공약평가단 종합적 평가에 의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부터 약 100일간 진행됐다.

군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총 59개 공약 가운데 40건을 완료했다. 공약 이행률은 79.5%로 전국 평균인 53.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공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주요 이행완료 사업으로는 △공공화합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청년공직자 정책 제안 활성화(정책반울림 운영) △찾아가는 생활돌봄 서비스 ‘우리 동네 흥반장’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군산 수제맥주·청주



군산중소유동공동도매물류센터안심물가제

<사진=군산시>

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시는 공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점검 및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규칙’을 개정해 공약의 확정 시기와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명시하고, 계획 변경 시에는 주민 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행정을 신뢰하고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의 노력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약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과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연말까지 공약이행률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공약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쟁걸음’

농식품부등방문예산반영요청

익산시가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가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을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최정록 방역정책국장과 정승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동물용 신약과 의료가 개발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강성희 재난경감과장에게 시민 안전을 위한 ‘평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아울러 계속사업인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화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문수 노인지원과장을 만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했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윤석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을 만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시는 정부의 예산 편성 흐름에 맞춰 앞으로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설득을 지속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강풍 대비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나서

올타리 등 가설시설물 집중 점검

정읍시가 최근 강풍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18개소를 대상으로 비계, 가설올타리 등 가설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풍으로 인한 공사장 올타리 전도 사고가 잇따름에 따

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과와 재난안전과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된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현장 18개소로, 건축공사장의 가설올타리, 작업용 비계, 거푸집 등 각종 가설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공사장 근로자들의 안전사

고 예방에도 힘썼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담긴 자율점검표와 비계 작업 시 안전 규칙 등을 추가로 배포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시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민간 안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노후·불량 수도관 정비사업 총력

963억규모2차사업환경부에 신청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불량 수도관 정비사업 추진 및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 전체 급·배수관 2,292km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 수도관은 459km에 달한다.

이에 시는 유수율을 개선하고 수질 저하,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437억 원을 투입해 총 99.8km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했다.

이 중, 국·도비 310억 원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조촌·경암·지곡동 일원 73.3km 구간의 관로를 교체했고, 시 자체 예산 127억 원으로는 공단 지역의 노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관로를 교체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후 수도관이 집중된 나운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2

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사업이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963억 원을 투입해 103.3km 구간의 노후·불량 수도관 정비와 700km 구간의 누수탐사 및 복구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50억~80억 원의 자체 예산을 지속 투입해 노후·불량수도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시민 아이디어로 익산이 더 재밌어진다

아이디어21개선정6월실행

문화도시 익산시가 시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나 색다르고 즐거운 ‘꿀잼도시’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올해 ‘삼삼오오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재미를 만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삼삼오오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익산을 위해 필요한 것과 해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직접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주체 플랫폼이다.

지난해 호평을 받은 ‘시민이 직접 만든 익산 여행코스’에 이어 올해는 ‘꿀잼도시 익산’을 주제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행사 만들기가 진행된다.

시는 지난달 시민 참가팀 모집을 완료하고, 팀별 모임을 거쳐 지난 13일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결과

공유회에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으로 구성된 91개 팀이 참여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선보인 아이디어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비롯해 가면을 쓰고 플래시몹을 펼치는 가면 축제, 익산 특산물인 고구마와 마를 이용한 컬링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또한 고구마 먹고 방귀 끼기 대회, 100초 영화제, 병아리 달리기 등 기존에 없던 독특한 콘텐츠도 제안돼 큰 관심을 끌었다.

시는 전문가와 방송 작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21개 팀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팀은 오는 6월부터 9월 까지 익산 전역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맞춤 지원 강화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정읍시가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다변화를 위해 논에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공동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교육·컨설팅부터 시설·장비, 사업다각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영농 면적이 10ha, 논 타작물 재배면적 5ha 이상, 참여농가 15인 이상,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농업공동경영체(농업법인, 농협조직 등)이다. 해당 사업은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돼 지원된다.

교육·컨설팅 분야에 선정된 경영체는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받아 농립

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할 전문 컨설팅업체의 재배기술 교육, 경영체 운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설·장비 분야는 교육·컨설팅 과정을 1회 이상 수료한 경영체여야 신청 가능하며,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공급을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3억원 또는 8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다각화 분야는 콩 종합선별장이나 유통·가공시설 구축을 위해 개소당 50여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에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 세부사업 계획서를 비롯한 관련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시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3억 투입 우기철 대비 하수관로 준설

익산시는 우기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준설 공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수관로 내부에 쌓인 토사, 생활쓰레기 등 퇴적물은 원활한 배수를 방해해 폭우 시 하수관 역류와 도로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주요 상습 침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

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3인 1조로 구성된 준설팀 3개조를 운영해 하수관로·빗물받이·맨홀 뚜껑의 퇴적물과 관로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최영철 하수과과장은 “도로 배수나 하수관로에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의료원, 급성기 진료시설 신관 본격 운영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급성기 진료시설이 본격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급성기 진료시설이 마련된 신관은 2019년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 사업에 선정된 후 2020년 설계에 착수했으며, 2021년 필수 의료시설 및 감염병 전담 병동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4년 12월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새롭게 조성된 급성기 진료시설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 면적 9,357㎡의 규모로 국·도비 총 410억 원의 사업비

가 투입되었다.

내부 시설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84병상) △수술실(5개) △중환자실(22병상) △감염병 분만수술실(1실) △감염병 전담 병동(7병상)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에는 음압격리실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 지원 시설이 갖춰져 감염 예방과 진료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다.

쾌적하고 청결한 진료환경이 조성되면서, 환자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모나용평(주),고창리조트 착공 속도

시행사 모나용평, 리조트
2028년 완공 목표
테마파크 內 국제 카누슬
라럼 경기장 건립

고창군과 모나용평(주)는 고창군 리
조트 사업 관련에서 전북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19개 부분 관계기관 협
의가 진행 중이다.

시행사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29
일 고창군으로부터 심원면 만돌리 일
대 1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에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
표로 중대형급 휴양형 콘도미니엄 470
실을 비롯해 18홀 골프장, 700석의 컨
벤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모나용평은 전라권에 분양홍보
관을 마련해 전라도의 핵심지역을 중
심으로 사업 초기 성공적인 콘도 분양
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모나용평 임학은 대표는 “고창군과
긴밀히 협업을 통해 서해안의 아름다
운 노을과 생태 갯벌을 테마로 한 다양
한 복합 체험 콘텐츠 구상을 마쳤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명소
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창종합테마파크 국제카누슬라
럼 경기장 건립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에 국제



<사진=조감도>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을 위해 총력
전을 펼쳐지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개최 후보지로 선정되면
서, 고창군의 카누경기장 건립사업은
지역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누슬라럼은 초당 2m 이상 급류에
서 바위, 제방 등 장애물과 기문을 통과
하는 경기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이지만, 국
내에는 아직 국제 규격 경기장이 없다.

카누슬라럼센터가 건립되면 국제 대

회를 유치하고, 선수 훈련과 유소년을
발굴하는 등도 가능해진다.

대회가 없을 때는 인공 래프팅장으로
활용해 수상 스포츠의 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철환 고창군 체육회장은 “전북특
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개
최 후보 선정은 고창군에도 큰 기회다”
며, “최신식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을
통해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고
창군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적
인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노을대교 왕복4차선 건설 촉구

익스트림 관광형 개선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필수

일반국도77호(부안~목포~과주)의 유
일한 단절구간 해소와 익스트림 관광형
왕복 4차선 노을대교 건설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해 일자리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의 숙원사업이
다.

국도교통부(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서는 국도77호 노을대교를 왕복2차선
교량으로 연장 8.87km, 교량폭 10.0m
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4,294억원으
로 추진중인 왕복2차로 교량은 단순
차량 통행용으로 진행중이나, 향후 지
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익스트림
관광형 왕복4차선 노을대교 건설로

개선해야 한다고 부안군 밝혔다.

정읍~부안간 일반국도30호 왕복4차
선과 정읍~고창간 일반국도22호 왕복
4차선의 중간지점인 일반국도77호(부
안~고창) 노을대교는 왕복4차선으로
건설돼야 도로의 병목현상이 예방되
기 때문이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21년 제5차 국
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22년 4월
입찰방식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22
년 6~11월 단독입찰 유찰(총4회), '23
년 4~12월 입찰 방법 변경 (일괄→설
계, 시공 분리발주) 및 기본설계, '24년
8~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총
사업비(4,294억원) 기획재정부 확정됐
다.

향후, 실시설계('26년 상반기), 착공
('26년 하반기), '30. 12월까지 사업완
료할 계획이라고 국도교통부(익산지

방국도관리청)는 전했다.

일반국도77호 당초 노을대교 사업
계획은 왕복4차선 교량계획이었으나,
일일 교통량과 사업효과 미흡으로 '21
년 9월 왕복2차선 교량으로 건설계획
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노을대교는 예
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 왕복4차
선 교량건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
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 및 새만금권 지역경제 활성화
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반국도
77호 노을대교는 익스트림 관광형 왕
복4차선으로 변경해 새만금 신항, 새
만금 공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물
류교통 및 관광산업 활성화 될 수 있
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국가예산 확보 발품 행보

기획재정부 방문부처단체
상황 보고회 등 적극 대응

정성주 김제시장이 20일 정부세종청
사(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6년 국가
예산 부처단체 마무리를 앞두고 김제시
알리기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경제예산심의관실을 시작으로 복지안
전예산심의관실, 국도교통예산과, 예산
총괄과 등 김제시 국가예산이 반영돼야
할 주요 부서를 차례로 방문해 김제시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 내 부
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발품 행보에 열을
올렸다.

최근 시는 지난 4월말 정 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한데 이어, 8일에는 국가예
산 부처단체 대응상황 보고회를 열어 부
처단체에서의 쟁점과 대응방안을 논의
한 바 있으며, 남은 5월말까지 김희옥
부시장과 국소장들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김제시에 국가예산이 조금이

라도 더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 시장은 “2026년 국가예산 부처 단
계가 5월말로 마무리되고 6월부터 기
획재정부 심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기
획재정부 예산실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김제시를 알리고 향후 성장 동력원이
될 중요 국가예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
고 이번 기획재정부 방문의 목적을 밝
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안전조업 장비 지원 4억 6천만원 투입

108척 대상 장비 123대 지원
사고 예방·생산성 향상 기대

부안군이 어선 조업 중 발생하는 안
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총 4억6천만 원을 투입, 관
내 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장
비 123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을 지원하고,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규모를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함으
로써, 어업인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올해 2월 어선장비 지원사업 공
모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협 중
앙회 공동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품질
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비를 태

풍 내습기 이전 조기 공급함으로써 소
기의 성과를 거양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지원되는 장비는 저탄소배출 고
효율 엔진과 어선을 자동으로 목적지
까지 운항할 수 있는 자동조타기, 인
력 대신 장비를 이용해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양망기 등 총12개 기종
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통한 사고예방이 기
대된다.

/부안=신성수 기자

고창군 ‘인생공예, 일상공예’ 개최

22~25일 전통예술체험마을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22일부
터 25일까지 2025 공예주간 행사
‘인생공예, 일상공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대손손 이
어진 고창의 공예, 일상의 가치를
감각하는 공예’를 주제로 지역 공
예가의 작품 전시, 공예체험 프로그
램과 공예마켓 및 공연까지 다채로
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2일에는 고창 공예장인들의 오
랜세월 동안 전해온 기술과 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윤도, 자수, 천
연염색 작품이 한 공간에 어우러진
전시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
게 스며든 공예에 대한 쓰임과 아
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지역 공
예가들의 공예작품을 소개한다.



23일부터는 고창의 무형유산 보
유자, 명인이 직접 진행하는 마스
터클래스 체험 등이 운영된다.

조창환 상임이사는 “이번 행사
는 공예에 대한 생각과 나눔이 이
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라며 “고창
의 공예를 몸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5
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본회의장에서 원포인
트 임시회를 열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전에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전
수관 의원이 제안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안’과 주상현 의원이 제안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
을 비롯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 15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주상현 의

원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
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주상현
의원은,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29
일 최초 허가 신청 이후 폐배터리 수
급 계획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제시
하고 자유무역지역별 악용을 시도한
바 있다”며, “중자산업특구와 민간육
종연구단지 등이 자리잡고 있는 해당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
의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은 국가 미래
식량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투
명한 정보공개와 즉각적인 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세계 벌의 날’ 부안군 ESG 환경사업 소개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행사

부안군은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
아 군청 1층 로비에서 ‘봉봉이 생일
파티’ 콘셉트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ESG 환경사
업 ‘야생벌을 지켜주세요’를 군민들에
게 소개했다.

특히, 민원과 직원들은 봉봉이 티셔
츠를 단테복처럼 착용하고 근무하며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 공

간에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스를 방문해
“봉봉이처럼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
원인을 응대하는 여러분 덕분에 행정
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
의 말을 전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고
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ESG 실천 콘
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즐겁고 실천
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
획이다.

/부안=신성수 기자

고창군, 세종청사서 ‘중앙부처 대응 전략회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6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군수는 20일 오후 세종시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2차)’를 개
최했다. 회의는 지난 4월 28일 열린 1
차 전략회의에 이은 것으로, 당시 부처
의 반응을 토대로 부처 대응 전략 마련
을 위해 열렸다.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포
함한 47개 주요사업에 대해 부처 반응
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
의했다.

심 군수는 환경부 이순현 수도기획

과장을 만나 ‘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
비사업’을 건의했다. 고창군 상수도 사
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무장·해
리·흥덕 급수구역의 노후된 상수관
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간 누수량
105만 톤 절감과 약 20억원의 생산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서해평 생활하수과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월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
비사업’을 건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는 “민선 8기 고창군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
처와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마이행시과태료 부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
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
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
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
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갭신 계약도 포함
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
문이나 부동산거래시스템, 모바일 간편인
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농기센터, 복분자 고사 피해 대응 현장교육 총력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복분자 고사 피
해 대응을 위해 농가 교육에 집중하고 있
다.

지난 19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
면 지난 15일 무장면의 한 복분자 농가에서
고사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이 진행됐
다.

교육에선 전년 대비 약 10일 가량 지연된
복분자 꽃 개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신초
(새순) 적심(순지르기) 기술에 대해 심도 있
는 토론과 실습이 이뤄졌다.

고창군 농기센터는 여름철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고온
극복 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저온성 멀칭필
름을 적용한 현장 실증도 함께 진행하고 있
다.

현행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복
분자는 소농부터 대농까지 농가 소득의 중
요한 축을 담당하는 고창의 대표적인 특화
작물이다”며 “농업인들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난 재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복분자 고사 극복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양성평등특,돌봄안전망 등 5개분야·27개세부과제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일 시청 2층 상
황실에서 정성주 시장(위원장)을 비롯한 양
성평등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년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양성평
등정책 시행계획 보고와 2025년 양성평등
정책 지원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해 적합여
부를 심사 평가했다.

올해, 김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2027년)에 따라 ‘공정하고 양성평
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
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
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
27개 세부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2천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인원 최대 6백만원 이내로 지원
할 계획이며, 이날 심사에 선정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해 6월부터 사업을 추
진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양성
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심사 평
가된 사업들을 내실있게 지원해, 우리 시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추진으로 실질적
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도로 개량 예타 조사 완료

국지도60호·국도24호 조사
지리산 접근성 개선 기대
남원-순창-함양 연결성 ↑

남원시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지도 60호선(인월~산내), 국도 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 2차로 개량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난 1월 23일 남원시 도로 2개 노선이 선정된 바 있다.

조사 대상인 2개 노선은 총17.6km, 총사업비 1,127억원의 규모로, 최종 선정될 경우 시의 재원없이 남원시의 SOC 구축 살림에 큰 보탬이 돼 오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월~산내 간 국지도 60호선은 지리산으로 가는 유일한 관문으로 도로 폭과 길여깨가 협소하고 특히 계절별 차량 정제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

△순창 적성-남원 주생 간 국도 24호선은 담양군에서 순창군 적성면까지는 4차로가 개설되었으나 체계산 출렁다리부터 2차로로 축소돼 비좁은 구간은



남원시는 20일 KDI이 국지도 60호선(인월~산내), 국도 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 2차로 개량사업 예비타당성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3차로, 이후 2차로로 다시 차로수가 감소해 도로 이용객에 불편과 함께 선정 불량과 사망사고가 발생된 사고다발 지역 도로이다.

이날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부시장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절실히 등을 평가위원회에 적극 설명하고, 다함께 뜻을 모아 200여명의 주민이 사업의 최종 선정을 기원하며 현장 조사 집결지로 응원을 나눴다.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 남원시장은 남원시 시민은 물론 관내 노선을 이용하는 인접 지역인 함양군, 순창군 등 생

활 인구의 안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앞장서서 대응중에 있다.

2026년 상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사업에 남원시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리산권 주요 관광명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함양군, 순창군 등 인근 지역과의 간선기능 역활로 지역균형 발전, 교통사고 감소 등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보다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공모 선정 도비·컨설팅 지원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 키워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는 도비 2,700만원과 문화예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미술·음악·무용·연극·문학 장르를 융합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 진행한다.

또한, 문화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지원하고, 교육사에게는 실무 경험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

공한다. 문화시설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통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김미경 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어플 출시

실시간 버스·공영주차장 정보
교통혼잡 줄이고 편의 향상

남원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와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실시간

으로 제공되는 교통 정보이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에 맞는 버스 노선과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주변의 공영주차장 상태와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주차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어플리케이션 상용화를 위

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평소 이용객이 많은 주요 승강장 70곳을 선정해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출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청 소식지에도 어플리케이션 설치용 QR코드를 삽입해 시민들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30일까지 신청

올해 지급 대상 농지 확대
농지 면적 따라 차등 지원

순창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 마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상 농업인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 면적 1,000㎡ 이상의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영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돼, 기존에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지나 공익사업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하천침몰 허가를 받은 농지에서 1년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했



순창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거나,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에 편입된 농지 중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았고 1년 이상 경작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군은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

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로, 농지 구간별 단가가 적용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길 위의 인문학' 4년 연속 선정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문학 강연 6월 개강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원시공공도서관은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 사업비로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을 가까이 접하고 공공도서관 등에서 인문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발굴·확산하며, 인문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6월 초부터 성인 20명을 모집해 6월 17일 ~ 9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강좌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문명사로 보는 아시아 문화인류학 주제"로 강연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원시는 "4년 연속 선정은 지역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만들어진 인문학 기반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2기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서 관광 활성화 등 논의

남원시는 20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2025년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 두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에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설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친 제95회 춘향제에 대한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보완해야 할 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맞춰 개관한 피오리움(FIORIUM)을 직접 관람해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의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는 더 많은 분과별 회의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분과에서 직접 정기회의의 안건을 선정하는 등 시민과 행정 간의 양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용진읍 주민자치위
소양천에 다슬기 60kg 방류

완주군 용진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호연) 위원 10명이 참여해 만경강 소양천 부근에 어린 다슬기 60kg 방류했다.

20일 용진읍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소양천 부근에 방류했으며, 올해도 방류활동을 이어갔다.

다슬기는 하천 바닥에 퇴적된 유기물, 폐사체 및 이끼 등 물속의 유기물을 섭취해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고, 생태계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호연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다슬기 방류 활동이 지역 하천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설선호 용진읍장은 "소양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하고 건강한 용진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청소년의원, '1일 군수' 활약

이한나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정책 제안까지 '열정 가득' 하루

이한나(한별고 2학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이 20일 교육·청년·아동분야의 완주군 '1일 군수'로 위촉돼 군정 전반을 살피는 바쁜 하루를 보냈다.

완주군은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하는 '주민우선·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1일 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 1일 군수인 이한나 학생은 위촉돼 수여, 보안서약서 작성,

문서 결재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의 현황과 관심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행정을 체험했다.

이한나 1일 군수는 가장 먼저 문화선도산단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미래행복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센터 '교래'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법인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전개

체납액 2억 4천여만원 달해
전수조사 압류·행정제재 병행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순창군은 현재 총 159개 법인의 2억 4,1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체납 법인의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 처분 대상을 선별하고,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적

극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회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파산 상태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기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클래식·영화음악 '도서관 작은 음악회'

31일 완주군 중앙도서관서
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오는 31일 오후 3시, 완주군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완주군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진행하는 이날 음악회는 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실내악팀이 참여해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책과 지식의 공간인 도서관에서 열리는 특별한 무대로, 음악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행사로, 가족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회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연현 문화예술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단체와 공공 문화시설이 협력해 지역 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의 일상화 실현에 기여하는 행사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우기 대비 275개소
급경사지 안전점검

순창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총 2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6개소와 붕괴위험이 있는 1개소 등 7개소는 5월 30일까지 우선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250개소는 10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반은 토사·낙엽 등 협잡물 퇴적 여부, 비탈면 지하수 유출 등의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우기 대비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만큼, 급경사지에 대한 선제적 점검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트레스 ZERO, 마음약방’ 운영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선)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부스 ‘스트레스 ZERO, 마음약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스트레스 탐색 질문지로 감정을 점검하고, 맞춤형 처방 처방에서 고민에 따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말랑 볼)’, ‘얼굴이 빛이 나는 약(마스크 팩)’ 등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고르며 심리적 위로와 재미를 동시에 느꼈다.

/남원=정하복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신입사원 관내 어르신에 주방기구 선물

사회공헌, 신입교육과정에 반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구) 신입사원 30여 명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주 평화사회복지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전개했다.

20일 전주공장에 따르면 이날 사회공헌활동은 독거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가운데 건강과 직결되는 노후 주방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관계기관 건의에 따라 가장 시급한 칼과 도마를 교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천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들

여 146세대 분 칼과 도마를 구매한 뒤, 지난 19일 신입사원 30여 명이 직접 쓴 정성 어린 편지와 함께 평화사회복지관 직원 돌봄가구들을 가가호호 방문에 노후 주방기구 교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1년 사이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회공헌활동과 관련, 회사측 관계자는 “좋은 사람이 좋은 차를 만든다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교육과정 중에 사회공헌활동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신입사원 30여 명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주 평화사회복지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전개했다 <사진=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완주 청소년, 청소년박람회서 수소 미래 전하다

완주군 청소년수련시설이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수소도시 완주’를 적극 홍보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소년박람회는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스를 운영했다.

이들 단체들은 부스를 통해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도시 완주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바다의 날’ 군산시, 해경과 함께 정화활동 펼쳐

해양쓰레기 5톤 수거

군산시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군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20일 실시했다.

금강하구 인근에서 전개된 이날 활동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군산해경, 군산해수청, 군산해양환경공단 등 7개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참가

자들은 약 2시간 동안 금강하구 해안에 밀려온 스티로폼 폐부표·각종 플라스틱,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구 및 비닐 등 5톤가량의 해양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바다를 깨끗하게 되돌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이들은 이후에는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군산=지승길 기자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부안 위도면에서 자원봉사활동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귀)는 20일 위도면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 나눔 봉사 및 부안군 이동세탁차량 ‘보송이’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 나눔 봉사를 통해 커피와 염색 등의 이·미용 서비스, 뜸과 서암봉 등 건강을 위한 서금요법을 주민들에게 선보였고, 이동세탁차량 ‘보송이’를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부피가 크고, 세탁이 힘든 이불 빨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읍예명문화원, 우리 전통 방식으로 성년의날맞이

성년의 날인 지난 19일 정읍예명문화원(대표 박영숙)이 태인고등학교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방식의 ‘성년의식’과 ‘다례체험’을 실시해 예비 성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예를 갖추어 전통 관복을 입고 성년이 됐

음을 선언한 뒤, 남학생에게는 어른의 상징인 관(冠)을 씌워주고 여학생에게는 아름다운 비녀를 꽂아주는 전통의례가 경건하게 진행됐다. 이어 성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다례체험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마시는 축하주 대신 정읍에서 자란 자생차를 함께 마시며 우리 차 문화를 배우고 생활 예절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우체국 임직원들, 정읍시에 600만 원 기탁

정읍우체국이 지역사회 발전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난 19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번 기부는 정읍우체국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정영한 국장은 이날 기부금을 전달하며 “정읍우체국 임직원들의 정성이 정읍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정읍우체국도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더 많은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정영한 국장님과 정읍우체국 임직원 여러분들의 뜻깊은 기부 동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응원이 정읍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조현 개인전 ‘지각된 풍경’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서 개최

서양화가 조현의 ‘지각된 풍경’이 오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회화의 물성과 행위, 감각의 교차에 주목하며 제작한 조현(1964~) 작가의 평면 회화 연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기간 중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진안읍 의용소방대, 직접 만든 반찬 나눔 봉사

진안군 진안읍 의용소방대(대장 이지훈)는 20일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0여세대에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남·여 의용소방대 대원 50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분주히 움직이며 먹음직스러운 영양 가득한 반찬을 준비했으며, 기후 상태를 고려해 철저한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조리했다.

이렇게 직접 만든 밑반찬들을 회원들이 직접 어려운 가구에 전달했으며, 취약계층 가정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며,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전길빈 기자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칼, 도미는 구분
해서 사용하기



식재료, 주방기구는
깨끗이 세척



적정 온도로
음식을 보관하기

〈一事一言〉



관용은 곧 무책임이며 침묵은 동조다

김관준
논설위원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의 사법부 중심지 중 하나인 서울서 부지방법원은 믿기 어려운 공격을 받았다. 백주대낮에 법원 건물에 난입한 폭도들은 벽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기물을 파손했으며, 심지어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 TV로 생중계되며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태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소란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테러이자,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극우 세력의 준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그 폭력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미온적이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한 폭도들에게 법의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이는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꼴이다. 대학입시에 사용되지 않는 어느 지방대학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이다. 이런 판결을 보면 마치 다음에라도 법원에 불만이 있으면 난입해서 기물을 파괴해도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폭력의 악령'이 되살아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서부지법 난입 사

건에 가담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일견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이 엿보이지만, 그 형량은 사건의 성격과 피해 규모,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볍다. 이들은 단순한 시위자가 아니다. 법원 내부를 휘젓고 다니며 해당 판사를 색출하려 했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조직적 범죄자들이다.

판결문에서도 밝혔듯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그들의 폭력을 낳았다. 이는 우발이 아닌 계획된 테러다. 법치주의를 흔들고 민주적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반사회적 정치 폭력에 다른 이름을 붙일 이유는 없다. 이 폭력은 더 이상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다. 사건 이후에도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과 극우 유튜브버들과 단체들은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극언을 퍼뜨리고, 대학 캠퍼스에 난입해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 집회를 감행했다. 이들의 행동 양상은 특정 정치세력의 사법적 위기에 대한 분노 표출을 넘어선다.

이는 80년 전 해방 공간에서 벌어졌던 우익 백색테러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자의적 폭력의 발현이며, 실질적인 ‘현대판 폭력정치’

의 재연이다. 폭력과 증오를 통해 세를 확장하고,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공존 원칙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적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극우 폭력 세력을 비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공범’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이들을 ‘애국자’로 미화하며 박수쳤던 목소리,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인물들은 지금도 건재하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적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들과 손잡은 유튜브, 일부 정치세력까지 그 범위는 넓고 깊다. 그들의 선동과 왜곡, 그리고 불법 집회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폭력행위를 유도한 명백한 범죄적 공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무너뜨린 반역에 가까운 행위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일부 가담자에게 국한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제대로 두고 본다면, 폭력은 다시금 ‘정치적 수단’으로 부활할 것이다. 법치가 허물어질 때 민주주의는 무력해지고, 헌정질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

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난입 사태에 연루된 전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하며, 특히 배후에서 폭력을 선동하고 조직화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병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관용을 통해 발전하지만, 그 관용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된다. 법원을 유린한 자들에게 관용이란 곧 무책임이며, 침묵은 동조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 사회도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폭력과 혐오에 침묵하는 사회는 그 침묵의 대가를 고통으로 치르게 마련이다. 언론은 이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나 일부 세력의 일탈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실의 전달과 지속적인 감시, 공적 기억의 형성이다. 교육과 문화,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의 원칙과 공공의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다층적 대응만이 폭력의 재발을 막고 다시는 법원이 공격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외면한다면, 내일은 더 큰 위협이 우리 공동체를 삼킬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방어할 때만 살아남는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방어의 최전선이다.

사설

전북도정 팀플레이로 시너지 극대화하자

김관영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강조한 ‘전략적 분업과 유기적 협업을 통한 촘촘한 팀플레이’는 도정이 당면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향 제시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비롯 대광범 대응, 메가 샌드박스 구상, 글로벌대학30 사업 등은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다. 이같은 과제 앞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전체 조직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전략이야말로 전북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도정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과정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치밀한 전략과 민관 협력이 요구되는 고난도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도청 실국 간의 전략적 분업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의 협업, 전북 각 시군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 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부서별로 역할을 세분화되고 그 결과물이 서로 긴밀히 맞물려 돌아가야만 한다.

민선8기 공약 이행 역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공약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의미가 있다. 각 실국은 이행된 공약이 도민 삶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증명하고, 그 효과를 홍보해야 한다. 신뢰는 투명한 과정과 성과의 공유에서 비롯된다. 전북권역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기회가 열린 지금, 대광범 개정과 관련한 행정력 집중은 필수다. 시행령 개정, 국가계획 반영, 연구용역 추진 등 실행 로드맵

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로 인해 도민이 어떤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한다.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메가 샌드박스 구상 역시 전북이 선제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미래 전략이다. 제도 실험장으로서의 ‘전북형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 창업, 규제완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 유연성을 시험하고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도정 내 각 부서가 실험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글로벌대학30 사업도 지역과 대학이 운명을 공유하는 동반성장의 기틀이다. 전북의 대학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 및 문화와 연계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대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결국 전북이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고립된 섬처럼 존재해선 안 된다. ‘전략적 분업’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다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이고, ‘유기적 협업’은 그 각각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는 실천적 연결망이다. 김 지사가 말한 ‘한 몸처럼 움직이는 도정’은 바로 이러한 체계와 문화가 정착될 때 가능한 일이다. 전북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이제는 행동으로 도정의 에너지를 집결시켜야 할 때다.

문화재열전



안국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2003년 12월 26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괴목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인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호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새벽 편지 / 박재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흔들만 감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파스한 햇살과 바람의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
대 국문학과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
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
아',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
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찌꾸', '낙타풀의 사
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
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전북타임스와 함께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JBT

전북타임스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익산 숨리마을



멈추어 섰던 ‘숨리마을 시간’ 속 역사와 문화 다시 피우다



한때 ‘숨리’로 불렸던 거리. ‘평동로’를 따라 이어지는 담벼락마다 오래된 간판이 아련한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숨리근대 역사문화공간’은 익산 도심 한가운데 숨겨진 시간의 서랍이다. 주단거리, 바느질거리가 말없이 이 거리를 지켜왔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옷을 지어 입었고, 삶의 중요한 절기마다 함께 웃고 울었다.

하지만 화려했던 영광은 지났고, 도시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속절없이 남아버린 벽돌집, 덧칠된 간판이 남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잊혀졌던 이 ‘숨리마을’에 익산시가 다시 시간을 걷는 길을 열고 있다. 바람 소리마저 고요하던 이 마을이 가라앉은 먼지를 걷어내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비누 향기와, 고소한 커피 냄새, 발걸음 소리가 겹겹이 퍼지는 이 골목을 거닐어보자.



◆과거와 오늘이 만나는 거리

갈대숲에 숨어 있던 작은 마을 ‘숨리(숨리)’. 고작 인가 10호 남짓이 전부이던 이 마을은 1914년 동리역이 생기고 열차가 들고 나면서부터 그야말로 엔진을 단 듯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교통의 중심지, 상업 도시로 발전했다.

1914년 이리역 통계를 보면 승하차 인원만 16만 명에 이르고, 오고 간 화물은 약 28톤으로 활발했던 이리역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호남 최고의 도매상들이 인근으로 몰리면서 미곡부터 잡곡, 신문, 여관, 장신구, 화과자 등 근대문화가 가득한 최고의 상업지역이 됐다.

익산시는 근대기의 상업과 생활, 저항과 생존이 응축된 살아있는 유산과 흔적을 잘 정비해 ‘숨리마을’을 조성했다. 근대문화유산의 숨결을 담은 살아있는 문화 체험 공간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숨리마을은 단순한 전시형 공간이 아닌, 원도심의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머무르고 체험하는 참여형 공간이다.

한복 바느질로 번성했던 ‘바느질 거리’의 흔적을 간직한 ‘포에버 매듭공방’도 있다. 당시 생활사와 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곳으로 끈기를 담아내는 매듭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오래된 골목 끝에는 독특한 감성의 숙소 ‘리스테이 익산’이 자리한다. 근대 문화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다. 일식 목구조 건물로 내부 바닥 장마루, 천장이 원형대로 남아있다. 마당의 프라이빗 풀과 야외 테이블로 만년 매력을 더한다.

‘숨리문화금고(옛 이리금융조합)’는 1925년 건립된 전형적인 금융조합 건물이다. 금고 등 내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이 건물은 광복 후 등기소, 전북은행 등으로 활용되다 이제는 작은 박물관이 됐다.

‘항일역사관(옛 익산 중국학교 및 강당)’은 1948년 설립된 학교 교육기관이다. 붉은 벽돌 외벽과 함께 학교 사회의 자취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현재는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를 기념하는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근대 유산 직접 체험하는 문화여행지 역사적 건축물 원형 살려 공간 재해석 ‘숨리문화의 숲’ 개관 북카페·전시관 등

역사적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쓰임을 더해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00년 건축 유산이 맞이하는 관광객

숨리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대 건축물을 적극 보존·활용해,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 같은 공간이 됐다는 점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공간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형성된 건축물로, 오래된 공간이 새 숨결을 품고 있다.

1954년 형제상회로 쓰였던 ‘이사도라주단 건물’은 이제 천연비누를 만들며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 공간으로 변신했다. 시간의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은, 근대 상가 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건물 간 연결 흔적이 남아있어 이 지역 상업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다.

이사도라주단 건물과 연결된 곳은 바로 옛 ‘새시대 양품 건물’의 다락이다. 한때 최고의 잡화점이었던 이곳은 이제 ‘속리카페’가 됐다. 향기로운 커피와 이야기가 흐르는 북카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원도심의 심장, 다시 뛰기 시작하다

익산시는 이 공간을 원도심 문화거점으로 삼고, 창업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역사 도시재생’의 모델로 키워갈 계획이다. 각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거점 공간인 ‘숨리문화의 숲’도 최근 개관했다.

북한문화공간인 숨리문화의 숲은 1층은 북카페, 2층은 전시관과 소극장으로 조성됐다.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숨리마을은 시간이 멈춰 있던 공간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공간이었다”며 “과거의 숨결 위에 새로운 삶을 입히는 이곳이,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여행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숨리마을 운영 주체인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공간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금액 할인 등의 행사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